

수련자는 어떻게 지옥의 문을 통과할 것인가!

김기용 (노암)

1

유하의 <무림일기(1995)>를 읽으면서 참 통쾌하고 짓궂은 패러디와 장난질의 유희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당대의 한국정치와 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유하 특유의 시어로 표현해내었던 것이다. 난 강홍구의 지난 10여년간의 작업과 생활이 그러하지 않은가 비약해본다. 물론 강홍구의 시각이미지는 유하의 시어와 다르다. 유하가 특유의 독설과 냉소적 유머가 있다면 강홍구는 그보다는 더 유연한다. 이번 <풍경과 놀다>는 더욱 부드럽고 한편으로는 비애감을 느끼게 한다.

“용도가 사라진 세트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버려진다. 그 버려진 세트의 폐허는 현실의 폐허보다 더 폐허같다. 아니 사실 세트는 버려진 다음에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시놉시스는 이렇다. 해맑게 웃고 있는 철거민의 자녀는 신문과 방송에서 쏟아내는 전쟁과 공포와 위기에 떨면서 이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소년의 집은 오쇠리에 있다. 오쇠리는 철거되었다. 그러나 소년은 집을 떠나지 못한다. 어느 순간 소년은 이미 용도가 다 된 세트장에 서 있다. 소년의 표정은 즐겁지 않다. 다른 사진에는 한 여인이 철지난 그러나 산뜻한 추억을 되살리는 양장차림으로 뒤돌아 서있다. 소년의 엄마가 아닐까? 소년을 찾아 나선 모성을 그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나의 공상일 뿐이다. 그러나 개연성이 충분한 이야기다. 현실은 연간 만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가출하거나 실종된다. 유기되거나 사라진다. 두 장의 사진이 현실로 복귀하는 순간이다. 작가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 여인은 드라마 세트장 구경을 핑계로 소년을 버리는 비정한 엄마의 모습은 아닐까? 여인은 왜 뒤돌아 서있다. 소년은 관객을 응시하고 여인은 등을 돌린다.

이미지는 힘이 있다. 이미지는 끝없이 우리의 시선을 현실 밖으로 잡아당긴다. 선택되고 배제된 이미지들의 유희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충돌하고 투쟁하며 관계맺기를 만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작가는 세상살이에 밝다. 미술관 밖의 현실에 누구보다 정통하다. 미술관은 현실의 밖에 있으나 그 또한 현실의 한 장이 아니던가. 어쩌면 오쇠리나 드라마 세트장은 우리 미술관의 다른 명칭일 뿐이 아닐까. 오쇠리는 철거되어 세트장이 되고 이렇게 버려진 세트장은 비현실의 이미지에 포섭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귀환한다. 강홍구의 작업들이 열어놓은 길은 그러나 즐겁거나 심오하거나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길은 비정한 현실과 비현실이 마주하게 하고 그 현실이 진짜 우리 세상살이의 현실인지 반문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나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다. 강홍구의 자리는 이러한 디지털 화 된 사회와 예술의 풍경의 어디쯤인가 자리한다는 것 말이다.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작업은 수련자 시리즈이다.

2

로댕갤러리 <지옥의 문>을 지나면 작가의 <전쟁의 공포>와 <자화상>, <그린벨트>, <오소리>, <드라마 세트 시리즈>가 연이어 등장하고 나면 그 끝에 <수련자시리즈>가 펼쳐진다. 앞선 작업들은 이미 소개된 적이 많았기에 성큼 지나쳐서는 수련자 앞에 섰다.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전시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이 수련자 시리즈이리라. 내 이런 주관적 판단은 1999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지금은 문을 닫은 서남미술관에서 있었던 작가와의 만남에 기인한다. 당시 나는 서남미술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당시 최민화선생의 개인전 때문에 최민화선생과 홍구형을 만났다. 우리는 과장된 한담을 나눴는데 왕우의 외팔이 시리즈, 대자객, 심야의 결투, 협녀, 정무문, 이소룡, 소림사십팔문 등등을 화제로 삼았다. 대화중에 두 사람의 눈빛은 광채를 뿜어내며 얼굴은 오래전 청년기의 열정으로 붉게 달아올라 여의도 서남미술관 전시장은 그들이 뿜어내는 공력으로 기묘한 풍경을 이루었다. 그들의 눈물담은 입담으로 무협이 멋과 낭만과 매력이 다시 펼쳐졌고 나 또한 그 세계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작가 강홍구는 “미술관 밖의 미술관이야기”라는 스테디셀러의 저자이며 직관적이며 위트 넘치는 필력의 소유자이었고 유쾌한 달변가였다. 그런데 그 상대인 최민화선생 또한 아주 뛰어난 재담가가 아니던가.

1960-70년대 검은 교복을 입은 알개시대의 청년들은 현대판 무림의 강렬한 파토스에 불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학창시절 무협은 당대 청년들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타르시스의 장소이자 영원히 기억으로 남은 추억과 객담의 저장고였다. 그 시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시기를 견디고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시기였고 새롭게 부활한 아시아의 영웅들과 그들의 모험담은 당대의 정서와 의식을 잘 반영했다. 무협영화의 고전을 소략해보면 역시 1967년 장철의 “외팔이시리즈(당시 제목은 독비도였다)”가 단연 백미일 것이다. 왕우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소위 무협의 교과서적 내러티브의 열개를 만든 역작이자 동양적 액션의 뿔을 잘 살린 영화였다. 장철 감독과 함께 무협영화를 개척한 호금전의 “협녀俠女(1969)”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박력 넘치는 협녀의 귀신같은 검술과 경공술, 대나무 발의 결투 등은 후에 “와호장룡”에서 재현되었다. 한편 “당산대형”, “용쟁호투”, “정무문”의 이소룡이 지르는 기이한 기합소리와 마술같은 쌍절곤 숨씨, 땀으로 번들거리며 수많은 결투로 피로 얼룩진 놀라운 신체, 그가 보여준 정의감, 관용과 순박한 정서, 그리고 엉뚱한 유머. 소림의 금빛나한들이 보여준 초현실적 스펙타클. 뜨겁게 달군 철사장의 경이, 경이, 경이들. 무협의 세계는 초현실이며 환타지였다. 후에 성룡의 코믹버전이 이러한 비장미와 끈끈한 감동을 이어받았다. 여하튼 강홍구의 수련자 시리즈를 보면 난 8년 전 그 날이 떠오른다.

뒷풀이 자리에서 작가는 수련자 시리즈가 이미 자신의 중학 시절부터 키워온 꿈이며 영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시작되었건 수련자 시리즈가 보여주는 모습은 짙은 눈썹의 만화적 캐릭터와 매우 과장된 진지한 카리스마를 담은 눈매와 품새다. 이 시리즈에서 작가는 아니 서울에 거주하며 무림의 세계를 경험한 자들은 수련자였고 마치 드라마세트장처럼 서울은 수련자를 단련시키는 수련장으로 화한다. 작가는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다. 그러나 우리의 수련자는 웬지 오래전 도시의 발전에 뒤쳐진 공간과 풍경, 도시의 뒷골목, 낡은 담벼락, 산동네, 철거촌 등등 서울의 화려한 시내가 아니라 서울의 외곽의 경계선상에 얼룩처럼 혹은 서울을 빔내주는 그림자처럼 설정되는 주변부, 도시가 아닌 도회지를 맴돈다. 그곳은 쇠락해가는 아니 이미 몰락해버린 문파의 유적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을 기연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수련자의 수련에는 일종의 비장미가 어리고 우울이 감돈다. 친숙한 골목길 축대를 기어오르고 흔들리는 나무 위에서 균형 잡으며 경공술을 익히고 격파와 철사장을 연마하기도 한다. 그 와중에 수련자는 지난 시기 한국의 현대사를 가로질러온 우리 모두의 자화상으로 변한다. 수련자는 오래전 각자의 마음속에 담가놓은 서울이라는 기억의 총체 어딘가를 향하는 열망의 화신이기도 하다. 현실의 서울은 소림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은 한편의 가설일 뿐이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미술이 사람들에게 던지시 던지는 농 짙은 가설임은 분명하다. 서울은 무림의 닮은꼴이며 현대판 무림이고 우리는 수련자의 길에 공감한다.

무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이며 그곳은 60-70년대 청년기를 보낸 이들의 불온한 뒷골목이며 해방구였다. 강력한 장풍과 깃털처럼 가벼운 경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자유와 방만한 허장성세의 양아치들의 세계였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하늘을 훨훨날고 지축을 흔들고 내 안의 신을 발견하였다.

작가의 말대로 현실은 있는 그대로 다가오지 못하고 뒤틀리고 뒤틀린 채 나타났다. 더욱이 결코 조우할 수 없는 처지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 간격은 줄어들 기색이 없다. 수련자는 시대착오적 영웅으로 이 벽을 넘어서려한다. 무협소설이나 영화에서 나타나는 점증하는 시련과 시험의 관문을 훌훌단신 통과해가는 것이다. 거기엔 비장한 유머의 미학이 있다. 뒤틀림을 긍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현실을 위한 계기로 변모시킨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떤 정의의 실현이나 복수의 완수 또는 우정과 사랑의 완성도 아니다. 그것은 공상 가운데 진실의 신기루가 나타나듯. 수련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 우리는 기분좋은 배신과 통과한 허탈과 허무를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과 시각이미지를 내부에서 전복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우수광스럽고 기괴하게 조작한 이미지라는 해괴한 패러디를 만나는 것이다. 수련자가 서있는 문맥은 분명 시간적으로는 급속한 압축적 경제 발전기와 닮아있고 공간적으로는 서울과 만났다.

강홍구의 수련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독한 수련을 통해 관문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퇴색해진 희망과 현실일 뿐이다. 오늘 서울의 수련자는 이제 자신의 한 팔을 내놓아도 또 이소룡과 같은 결의 기합을 질러도 자신의 꿈을 만나지 못한다. 수련자의 각고의 노력과 실력의 배양도 현실의 견고한 벽을 뚫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수련자는 다만 우리의 기억과 가슴에 또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몽클한 추억과 낭만 속에만 거주한다. 오늘날 예술가는 훌훌단신 자신을 에워싸는 비정한 폭력과 분노의 현실 속에 놓여진 우수광스런 광대가 아니던가. 수련자는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나 그것은 한편의 철지난 코메디나 우스운 에피소드로 귀결된다. 이미 거인과 같은 악당은 손닿을 길이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보이지 않는 투명의 망토를 지녀 수련자의 안력을 극성으로 끌어올려도 그 모습을 종잡을 수 없다. 현실은 그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복잡하고 거대하다. 한 없이 진지한 수련자는 공력을 올려 노력해보지만 또 경공술을 발휘해 쫓아가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좁혀지지 않는다.

수련자 시리즈 탄생의 비화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낳는다. 어느날 작가는 철거촌을 여행한다. 왜 하필 풍경 좋은 곳을 놔두고 대도시의 발전이 낳은 필연적 그늘, 쓰레기 더미, 패배자들 거주지를 돌아다녔는지는 묻지 말자. 돌고 돌아 작가는 수련자와 조우한다. 그것이 곧 기연이다. 예술의 탄생은 분명 어떤 형태든 기연을 동반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게임 속 캐릭터 인형이 쓰레기 속에 버려져 있다. 수련자의 눈매는 자신의 처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듯 부리부리하고 진지하다. 그는 마치 불굴의 영웅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수련자의 브리콜라주. 그가 놓인 곳은 성장하고 진화하는 서울 변두리 철거촌 쓰레기 더미의 어떤 무의미한 장소였고 수련자와 작가의 만남은 아무 의미 없는 결정적 기연일 뿐이었다. 그러나 결정적 기연이라는 이 모순적 조어는 근래 증가하는 사이버 비평의 맥락과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그 거리는 소위 그 모호한 차이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디지털 시각이미지들의 스펙타클과 이를 내외로 감싸는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거리의 확보와 시각은 한 사회가 딛고 서있는 정치경제적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찰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시도들은 걸 모습만 스타일리쉬한 광고카피거나 현대 오락산업에 복무하는 자극적인 가십거리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결국 후사를 도모하거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갓 제스처에 머무는 태도는 안으로 모순과 갈등, 위기가 증폭되지만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변화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거나 마침내 거부하는 시대착오의 전형적인 귀결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적 풍경과 그렇지 않은 풍경의 경계에서 우리의 수련자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가. 질문은 꼬리를 물어 밀레니엄을 지난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절에 도대체 비판적 현실주의는 어떤 외양을 하게 된 것인가. 또 얼마나 그 외연을 넓혀왔던가. 궁극에는 무색무취한 것이 되버린 것은 아닐까? 비판적 현실주의는 분명 신자유주의의 축복 속에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닌가?

“작가 왈, 나는 미술작품을 둘러싼 제도와 말과 이론들에 너무 짜증이 나서 지극히 무의미한 가짜 사진들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내 사진은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황당무계하기를 바랐다.”

작가의 소원은 이루어졌나? 소박하게 보면 수련자는 로댕의 지옥의 문을 마지막 관문으로 삼은 듯 보였다. 소림사 18문의 마지막 관문이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니! 진짜 황당무계요 희극의 극치다. 작가의 기대는 결국 기대에 머물지만은 않았다. 서울의 중심가 삼성 타운의 중심에 자리한 로댕갤러리에서 수련자는 마지막 수련을 시험하기 위해 지옥의 문과 마주한다. 로댕의 지옥의 문을 뒤로 신사숙녀 여러분을 향한 작가의 인사말을 들으며 한편으로 느껴지는 초현실적 풍경의 그 황당무계함이라니.

로댕갤러리 앞 도로변에 미술계의 알아주는 세 입담가 모였다. 비평가 이재현 선생이 작가 배영환에게 농을 쳤다. “내 주위에서 출세한 사람이 둘 있는데 너 하고 강홍구다.” 알다시피 작가 배영환의 최근 전시 제목이 “남자의 길” 아니던가. 비약하자면 남자의 길은 죽음의 문을 향해 두박두박 걸어가는 수련자의 다른 버전처럼 보인다. 이미지는 죽음을 통해 탄생하거나 또는 예술은 죽음을 통해 비로소 탄생한다는 직관과 삶의 사실관계를 바로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여하튼 그 또한 우리 현대사의 주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쾌하면서도 비애감이 어린 시리즈를 선보였던 그가 베니스비엔날레에 초대되어 공력을 선보인 바 있다. 그 또한 초현실적 비약이고 그로테스끄한 풍경이지 않았는가. 세 수련자들은 마치 소림18문 가운데 한 관문 앞에서 치기를 뽐내고 일부로 농을 치며 서로의 내공을 장난질하는 듯 보였다.

강홍구의 이번 수련자시리즈는 평소 잘 하던 놀이를 삼성타운에서 흔쾌히 해 보이는 서울판 아방가르드라 생각한다. 최민화 선생이 마치 하버마스 마냥 자신은 끝끝내 모더니스트라고 고집부리 듯 강홍구의 수련자시리즈에 오버랩해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미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접근일 텐데 아마도 수련자가 실전(失傳)된 비급을 고대하듯 다시 아주 오래된 미학의 원형적 형태에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며 우리 시대에는 윤리와 예술의 불가능한 만남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풍경에서 또 한 수련자에게서 그 단서를 찾아본다.